

「누에」 _ 최승호

※ 다음 글을 읽고 주제 방향성을 잡으시오.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壞疽)* 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누에」

*은수자: 숨어서 도를 닦는 사람.

*회저: '괴저'의 비표준어로, 살점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병을 일컫음.

✓ 주제 방향성 :

#EBS의 시선

이 작품은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기까지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에는 스스로 고치로 들어가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며 날개를 얻을 날을 꿈꾼다. 고치의 벽이 풀리고 누에가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은 외부의 조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얻고자 하는 누에의 꿈과 고치의 벽을 뚫고자 하는 누에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누에들은 ~ 가능했을까.
: 나비가 되려는 누에의 꿈
- 어느 날 ~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날개
- 밖에서 ~ 잘 알고 있다.
: 스스로의 힘으로 나비가 된 누에

✓ 주제 : 누에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누에의 노력

- ① '흰 동굴'에서 흰색의 이미지와 '밤'에서 흑색의 이미지가 대비되어 있다.
- ② 물음의 형식(설의법)을 통해 누에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깨달은 바가 부각하고 있다.
- ③ 상승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동굴'은 누에가 고통 속에서 존재의 변모를 이루어 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이 작품은 생명 탄생의 순간을 바라보며 얻은 깨달음, 그리고 생명 탄생의 순간의 신비와 화자의 감동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⑥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은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기 위해 거쳐야만 하는 인고의 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⑦ '회저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에 '날갯짓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소멸이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⑧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이 타자가 아닌 주체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⑨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는 생명 탄생의 순간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THE - 깊은 독해]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 누에를 은수자로 빗대어 나타내었다. 여기서 은수자는 숨어서 도를 닦는 사람을 말한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 누에가 누에고치가 되는 상황이다. 이때 '자승자박'은 자신이 만든 줄로 스스로를 묶는다는 뜻으로, 누에가 스스로 고치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흰 동굴'은 누에고치를 비유한 말로,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는 것을 통해 앞서 누에를 도를 닦는 은수자로 비유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 누에고치 속에서 고치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이때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은 누에고치 속에서의 시간으로, 생성을 위한 인고의 시간을 의미한다. '존재의 변모'는 번데기가 나비로 되는 과정을 의미할 것이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 앞선 '존재의 변모'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날개'는 나비의 형상을 의미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 없이 가능했을까.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꿈 없이는 누에가 나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신비로운 변모'는 누에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것을 말하며, '꿈'은 나비가 되겠다는 꿈을 가리킬 것이다. '꿈의 힘'은 존재의 변모를 가져오는 원동력이다.

▶나비가 되려는 누에의 꿈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 나비 탄생의 순간이다. '해맑은 아침의 얼굴'은 나비를 비유한 말이며, '동굴(=흰 동굴)'은 누에고치를 비유한 말이다.

회저(壞疽)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 누에고치 속에서 번데기로 지내는 고통을 오랫동안 겪고 나서 비로소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된다는 뜻이다. 이때 '회저'는 '괴저'의 비표준어로, 살점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는 병을 말한다. 즉, 번데기의 상태에 있던 누에가 나비가 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연금술의 긴 밤'은 누에고치 속에서 변화되는 시간을 비유한 말이다.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라는 표현에는 탄생에는 오랜 고통이 수반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또한 이때 '하늘 백성'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인 나비를 뜻하며, '날갯짓'이라는 표현은 역동적 이미지를 환기한다.

▶고통을 극복하며 얻은 날개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 여기서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행위는 외부의 도움을, '누에의 왕'은 문맥상 누에의 조력자를 의미한다. 즉, 이 문장은 누에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누에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한다는 표현은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의 변모를 완성해야 함을 나타내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표현은 외부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만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비가 되는 누에

[수능적 독해 Point]

- 화자 :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누에의 변모를 관찰하는 이]
- 상황 : 누에가 누에고치 속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을 봄
- 정서·태도 : 변모를 위한 꿈과 스스로의 힘의 중요성 [관조]

[연 관 - 기 출 문 제]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오동은 고목이 되어갈수록
제 중심에 구멍을 기른다
오동뿐이라 느티나무가 그렇고 대나무가 그렇다
잘 마른 텅 빈 육신의 나무는
바람을 제 구멍에 연주한다>

[B]

<어느 누구의 삶인들 아니라
수많은 구멍으로 빚어진 삶의 빈 고목에
어느 날
지나는 바람 한 줄기에서 거문고 소리 들리리니>

[C]

<거문고 소리가 아닌들 또 어찌랴
고뇌의 피리새라도 한 마리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다면
텅 빈 누구의 삶인들 향기롭지 않으랴>

[D]

<바람은 쉽없이 상처를 후비고 백금갈날처럼
햇볕 뜨거워 이승의 한낮은
육탈*하기 좋은 때>

[E]

<잘 마른 구멍하나 가꾸고 싶다>

- 복효근, 「고목」 -

* 육탈: 살이 썩어 뼈만 남음.

(나)

누에들은 은수자(隱修者)다.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감춘다.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된다. 이 신비로운 변모가 꿈의 힘이 없이 가능했을까. 어느 날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온다.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이다.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에의 왕은 없다.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최승호, 「누에」 -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의 대비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심리적 추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2. 시상의 흐름을 고려할 때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자연물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연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 ② [B] : [A]에서 주목한 자연 현상을 유추를 통해 인간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 ③ [C] : [B]에 나타난 삶에 대한 이해가 의문형 진술의 반복을 통해 확장되고 있다.
- ④ [D] : [C]에서 얻은 삶의 의미를 실천하지 못한 회한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E] : [A]~[D]를 통해 얻은 삶에 대한 통찰이 화자의 소망으로 집약되고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존재는 스스로와의 결별을 통해 성숙한 존재로 완성되는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인고의 시간을 수반한다. 그리고 존재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어 이러한 인고의 시간을 극복할 때,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련은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을 돕는 환경이 된다. (가)는 외부 세계로부터 주어진 시련에 대해,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스스로 만들어 낸 시련을 견뎌냄으로써, 새로운 존재로 생성되어 가는 성숙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에서 ‘구멍’은 ‘피리새’가 서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자를 포용하는 공간이고, (나)에서 ‘동굴’은 ‘하늘백성’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한 마리’가 ‘세 들어 새끼칠 수 있’는 것과 (나)에서 ‘누에의 왕’이 ‘구멍을 뚫어주’지 않는 것은 모두 역설적으로 존재의 소망 실현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삶’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구멍을 ‘가꾸’어야 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날갯짓’을 시작하기 위해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점에서 모두 스스로 성숙의 주체가 되는 모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한낮’은 ‘상처’가 후벼지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긴 밤’은 ‘고통’스러운 ‘연금술’이 진행되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성숙한 존재가 되기 위한 인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육탈’은 ‘잘 마른 텅 빈 육신’을 위한 비움의 과정인 반면, (나)에서 ‘변모’는 ‘없었던 날개’가 창조되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All-바르게 확인하는 정답 및 해설]

1.

[정답 SCAN] ㉔

2.

[정답 SCAN] ㉔

3.

[정답 SCAN] ㉔